

---

2022년도 수출입은행 경영평가  
평가 결과보고서

---

2023. 12. 14.

## 1. 경영실적 평가 개요

### (1) 경영예산심의회 구성·운영

- 기재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 제645호)에 근거해 경영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하고,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의회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회계 전문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 심의회는 평가편람과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에 통보한다. 통상적으로 1차 회의를 통해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2차 회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산출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 심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의사결정 독립성 및 공정한 평가 도모를 위해 위원명 익명처리

< 수출입은행 경영예산심의회 위원 명단 >

구 분	성 명	약 력
위원장	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대외부총장)</li> <li>· 이화여대 경영연구소장, 국민카드 감사위원</li> </ul>
예산·회계 전문가	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회계법인 부대표(공인회계사)</li> <li>·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li> </ul>
경영평가 전문가	다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li> <li>· 금융위 경영예산심의회 위원</li> </ul>
	라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거시·금융연구부장</li> <li>· 기재부 국제분과 성과평가위원</li> </ul>
공공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li> <li>· 금융위 ESG 민간전문가 그룹</li> </ul>

## (2) 경영실적 평가 지표

### 가. 경영관리 (배점 : 40점) ※ 금융위 평가

- 수출입은행의 목표달성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입 은행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 경영관리부문 평가지표 >

분야	지표	평가지표	배점
경영관리	계량지표	고객만족도	1.0
		인권경영	1.0
		국민 소통	2.0
		1인당 부가가치	1.0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2.0
		이익목표달성도(총당금 적립전)	4.0
		총자산순이익률(ROA)	2.0
		계량관리업무비	2.0
		총인건비인상률	2.0
		계량지표 소계	17.0
	비계량지표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노력	3.0
		정부 권장정책 대응 및 업무지원	3.0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 및 노력	2.0
		적극적 채용관리	3.0
		합리적인 인사관리	3.0
		내부성과평가 적정성	3.0
		효율적인 조직관리	4.0
		보수 및 복리후생	2.0
		비계량지표 소계	23.0
	경영관리부문 소계		40.0

## 나. 주요사업 (배점 : 60점)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정책금융 지원 및 건전성 관리 등을 평가한다.

< 주요사업부문 평가지표 >

분야	지표	평가지표	배점
주요 사업	계량 지표	자금공급목표 달성	6.0
		자금조달목표 달성	4.0
		혁신성장산업 지원	3.0
		주력산업 지원	2.0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3.0
		일자리창출 성과(Output)	4.0
		기관별 맞춤형 지원(정부 수탁기금 관리)	3.0
		계량지표 소계	25.0
	비계량 지표	국가전략산업 지원*	8.0
		전략시장 발굴 및 지원	5.0
		기금 수탁업무의 효과적 수행	4.0
		중소중견기업 지원	4.0
		지속가능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4.0
		비계량지표 소계	25.0
	건전성 관리지표	BIS기준자기자본비율	2.0
		연체대출채권비율	2.0
		대손충당금적립률	2.0
		외화유동성비율	2.0
		외화유동성갭비율	2.0
		건전성 관리 지표 소계	10.0
	주요사업부문 소계		60.0

\* 혁신성장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상품 출시시 최대 1점 가점 부여

## 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평가(가점 : 최대 3점)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에 따른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였다.

### (3) 금년도 평가 주안사항

- 금번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 노력, 정부기금(EDCF, 남북기금) 운용·관리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 수행 노력이 평가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한시적으로 배제·축소한 건전성 지표를 정상화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노력 관련 비계량 평가를 종료하였다.

### (4)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기관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 점		95점이상	95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지 급 률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100%	83%	58%	25%	0%	0%
	임원 (기본연봉 대비)	80%	72%	60%	44%	0%	0%
	직원 (월기본급 대비)	200%	180%	150%	110%	0%	0%

\* 기획재정부 『'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준용. 단, 승인예산 한도내 지급

- 또한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예산·정원 승인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예산승인 등과 연계하여 위반비율 등에 상응한 예산삭감 등 조치를 하고 있다.

## 2. 주요사업

### (1) 계량지표

#### 가. 자금공급목표달성도

##### ① 평가개요

(단위 : 억원)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 자금공급 / 목표 자금공급	목표대 실적	560,000	593,275	100	6	6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상 자금공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에는 목표치 56조원을 초과 달성하여 만점을 득점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혁신성장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다각화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 목표 대비 105.94%인 59.3조원을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은 혁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규 가동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금공급 실적	488,705	515,147	639,988	605,858	593,275



## 나. 자금조달목표달성도

### ① 평가개요

(단위 : 억원)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 자금조달 / 목표 자금조달	목표대 실적	560,000	730,748	100	4	4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상 자금조달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에는 목표치 56조원을 초과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글로벌 긴축상황하 선제적 대응, 유동성 조달채널 다변화 등을 통해 자금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 조달하여, 목표대비 130.5%인 73.1조원을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자금조달실적은 자금공급실적과 함께 증가 추세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안정적 성장을 지속중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금조달 실적	540,052	592,912	731,684	676,106	730,748

## 다. 혁신성장산업 지원

### ① 평가개요

(단위 : 억원)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 자금지원액 / 목표 자금지원액	목표대 실적	140,000	225,453	100	3	3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상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에는 목표치 14조원을 초과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정부의 혁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원기업 수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 노력을 통해 목표를 61.04% 상회하는 22.5조원의 금융을 공급하였다.

### ④ 추세분석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여신 집행 규모는 2018년 이후 연평균 46.4%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공급 실적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혁신성장산업 공급실적	48,516	77,664	129,427	184,778	225,453

## 라. 주력산업지원

### ① 평가개요

(단위 : 억원)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 자금지원액 / 목표 자금지원액	목표대 실적	57,000	57,528	100	2	2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자동차, 조선 영위 중소중견기업 앞 대출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에는 목표치 5.7조원을 초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정부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업종 중소중견 취약기업 지원 정책에 부응하여 2022년 총 5.75조원을 지원함으로써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자동차, 조선 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던 조선사 앞 상생협력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이와 근접한 수준의 지원규모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력산업 공급실적	36,806	49,157	58,254	56,237	57,528

## 마.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 ① 평가개요

(단위 : 억원)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 자금지원액 / 목표 자금지원액	목표대 실적	24,000	36,283	100	3	3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여신승인 목표 대비 실적을 측정하였다. 2022년에는 목표치 2.4조원을 초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22년 수출입은행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실적은 3.6조원을 시현하면서 목표대비 151.18%를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승인실적은 2020년 경기 부진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 승인 실적	21,089	25,399	17,616	25,822	36,283

## 바. 일자리창출 성과(Output)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종업원수* 증가율 평균/ 연간취업자수 증가율**	목표대 실적	2.99% 이상	6.78%	100	4	4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 통계청 연간 취업자수 증가율('22년)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전년도말(2021년말) 대비 평가대상년도말(2022년말) 종업원수를 비교하여 증가율 평균을 측정하였다. 2022년에는 목표치인 연간 취업자수 증가율 2.99%(통계청 자료 기준)를 초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고용 증가율에 따른 단계적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여타 우대 프로그램과의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수혜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추세분석

-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종업원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목표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6.78%를 달성하는 등 목표대비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다.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종업원수 증가율 평균	7.33	6.18	6.04	9.14	6.78

## 사. 기관별 맞춤형 지원(정부 수탁기금 관리)

### 1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리업무평가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중점지원분야* 승인/ 목표	목표대 실적	2,100 백만불	3,360 백만불	100	1.5	1.5
용자사업 집행실적/목표	목표대 실적	12,306 억원	12,176 억원	98.9	0.5	0.5**

\* EDCF 중점지원분야(그린, 디지털, 보건)

\*\* 목표치의 90%(평점 90) 이상 달성시 만점

#### ② 평가내용

- 개도국 경제협력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리업무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개도국 앞 중점지원분야(그린, 디지털, 보건) 차관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승인금액) 및 개도국 앞 차관 집행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중점지원분야 승인은 목표대비 160%, 집행은 98.9%의 실적을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집행은 목표치의 90% 이상 달성시 만점)

#### ③ 항목별 원인

- 코로나19 여파, 세계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그린분야 15억불, 디지털분야 12억불 지원 등 EDCF 중점지원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역대 최대 승인실적(3.1조원)을 달성하였다. 집행 또한 사업별 적극적인 집행관리로 정부목표(100%가 한도인 예산개념) 대비 98.9%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 ④ 추세분석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승인·집행이 감소하였으나, 우리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따라 용자사업 전체 승인 및 집행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연간 승인실적 3조원을 최초로 달성하였으며, 집행도 2년(2021, 2022년) 연속 정부목표 대비 95% 이상을 실현하는 등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 한편, 2020년 이후 승인실적 평가는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중점지원 분야 지원 정책을 감안하여 중점지원분야 차관 승인금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용자사업 승인	19,489	25,927	8,139	26,591	30,843
용자사업 집행	8,579	10,518	9,024	12,267	12,176

## ② 남북협력기금 관리업무평가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무상지원사업 집행 실적 / 목표	목표대 실적	50%	105.78%	100	0.5	0.5
유상지원사업 집행 실적 / 목표	목표대 실적	90%	92.69%	100	0.5	0.5

### ② 평가내용

-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관리업무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남북협력사업 특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무상지원사업 및 유상지원사업의 목표를 각각 연간 승인실적의 50%, 90%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105.78%, 92.69%의 목표달성도를 시현하여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기금지원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으로 지원목표를 달성하였다. 2022년에는 남북경협기업 경영난 경감을 위한 4년 만의 신규 유동성 지원(총 425억원) 실시로 전년 대비 집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④ 추세분석

- 기금지원실적은 남북관계, 국제정세 및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바, 이에 따른 연도별 변동세를 보였다. 2018년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피해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증가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규모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22년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상지원사업 집행	2,092	724	417	289	512
유상지원사업 집행	26	26	26	23	267

## 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BIS 기준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5등급 계량평가	10.5% 이상	13.38%	100	2	2

\* BIS기준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순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 위험가중자산 : 신용 + 시장 + 운영위험가중자산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 등 자본건전성 유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 목표치 10.5% 이상을 기록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155억원 실현, 후순위채 3,000억원 발행 등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2.88%p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2020~2021년 평가시 한시적으로 배제되었으나 2022년 평가시부터 정상화된 지표로, 추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 자. 연체대출채권비율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5등급 계량평가	2% 이하	0.84%	100	2	2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부실 여신비율 감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연체대출금을 총대출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목표치 2% 이하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불안,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일정규모 이상 여신지원 건에 대해 심사·승인을 분리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연체대출채권비율을 목표치 2% 이하인 0.84%로 관리하였다.

### ④ 추세분석

-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을 감안하여 2020~2021년 평가시 한시적으로 배제된 지표로, 추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부실여신 비율 관리 노력으로 꾸준히 목표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체대출채권비율	1.17	1.05	-	-	0.84

## 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총 대손충당금 잔액 / 고정이하여신	5등급 계량평가	80%이상	208.43%	100	2	2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22년 목표치 80% 이상을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부실여신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고정이하여신이 4,379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507억원 추가로 적립하여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전년 대비 52.0%p 증가한 208.43%를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부실여신에 대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기조를 견지하려는 노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손충당금 잔액	24,529	27,973	33,192	28,978	29,485
고정이하여신	15,615	18,450	15,319	18,525	14,146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57.08	151.62	216.67	156.43	208.43

## 카. 외화유동성비율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외화자산* / 외화부채*	5등급 계량평가	100% 이상	172.58%	100	2	2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 ② 평가내용

- 외화대출 취급이 많은 수출입은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기능 확보를 위한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누어 매분기말 측정하였으며, 목표치(100% 이상)를 상회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주요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선제적 외화조달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외화유동성 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172.58%를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노력의 결과, 목표치를 상회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화유동성비율	180.47	206.34	188.02	159.94	172.58

## 타. 외화유동성갭비율

### ①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외화자산*-외화부채*) / 총 외화자산	5등급 계량평가	△10%이상	8.49%	100	2	2

\* 1개월 이내 만기도래분

### ② 평가내용

- 수출입은행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간 만기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총 외화자산으로 나누어 매월말 측정하였으며, 쏘기간 목표치(△10% 이상)를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 ③ 항목별 원인

- 선제적 외화조달을 통한 여유자금 확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간 만기 불일치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갭비율은 목표치를 초과한 8.49%를 달성하였다.

### ④ 추세분석

-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노력의 결과, 목표치를 상회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화유동성갭비율	4.38	5.86	6.97	5.52	8.49

## (2) 비계량지표

### 가. 국가전략산업 지원

#### ① 혁신성장산업 금융지원 강화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분야 내 우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하여 펀드투자, 채권보증 및 PF(Project Finance) 방식 여신지원 등 다양한 금융제공 수단을 활용하였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및 미래차 분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관련된 블라인드 펀드·프로젝트 펀드 구성에 참여하였으며,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상황 속 채권보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신용 또는 담보 제공 부담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PF 방식 여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혁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향후에도 기관은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혁신성장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14)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목표치(14조원)를 크게 상회한 22.5조원을 지원하였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정부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조성한 수출입은행의 '핵심전략산업 펀드'는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안정화에도 적기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이차전지, 친환경 선박, 수소·태양광 등 新산업 분야를 활발히 지원하였고, 정부 및 국내외 금융기관·기업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친환경 에너지사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수소·태양광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별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 및 그린에너지 시장선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바이오매스 등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자폐기물 처리 시장 선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가점) 혁신성장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상품 출시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자, 차주별 여신 통합한도인 ‘핵심전략산업 크레딧라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핵심 전략산업 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신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향후에도 핵심전략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육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관이 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2)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입한 ‘핵심전략산업 크레딧라인’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금융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투자 검토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금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핵심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대출-보증-투자’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운용사의 투자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성장 유망기업을 적시 발굴하고, 글로벌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이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상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 ② 핵심전략산업(반도체/바이오/미래차/배터리) 금융지원 노력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제약·바이오, 방산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총 9.9조원 규모의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 및 필수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 등 배터리 산업 급성장에 대응하여 배터리 핵심 소재 국산화, 생산능력 확대에 많은 지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미래차 전환 및 전장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보유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제약·바이오 산업의 밸류체인별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역대 최대수주 달성을 견인하는 등 K-방산의 신성장 동력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③ 건설·플랜트산업 금융지원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발주처의 금융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례로 해외 발주처 RM(Relationship Manager) 기능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진출확대와 높은 금융 수요가 기대되는

국가의 주요 발주처(사우디 Neom, 인니 전력공사 등)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해외 ECA 및 유력 발주처와의 면담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 사업발굴, 금융제공 방안 공유, 우리기업 역량 홍보 등을 지속하였고, 이는 우리 기업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22년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을 통해 금융경쟁력을 제고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주택 재건축 사업 등 미국 주택, 발전 산업 등에서의 우리기업의 선진국 진출 또한 지속 지원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해외 발주처 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주처 대상 마케팅 등 우리기업 수주 단계에서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 결과보고서 p.15)
- ▶ 선진국 인프라시장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은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15)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22년중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에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영국계 수출금융 리서치 기관(TXF)으로부터 상품 다양성, 고객 니즈 대응력 등에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2022 최우수 ECA'로 선정되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UAE 해저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은 우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우리나라와 UAE 간 경제협력 강화에 교두보가 되는 사업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전문지 PFI와 IJ Global로부터 '2022 Deal of the Year'를 동시 수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2년중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해외수주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내외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 방식 다변화와 ‘Team Korea’ 역량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본여신약정(F/A)과 여신 의향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사우디 네옴시티 인프라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또한, 개별사업에 최적화된 금융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지주회사 금융, 현지통화 대출 등을 수출입은행 최초로 도입하여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선진국 인프라 사업 등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사업개발, 건설, 운영 등 소단계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Team Korea’의 일환으로 국익 극대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 ④ 조선·해양산업 금융지원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카타르 국영에너지공사 (Qatar Eneregy)의 LNG 운반용선 발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2022년중 총 20척의 LNG 운반선 구매 금융을 지원하는 등 국적선사의 전략선종 선대확충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선박금융을 지원하였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국내 해운사 LNG 운반선 구매금융 지원은 전년 대비 약 9.6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LNG 운반선(29척) 중 약 70% 수준이다. 우리 해운사의 친환경 운송시장 진출 적극 지원을 통해 조선사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우리 해운사의 친환경 운송시장 진출 초반인 만큼 카타르 국영에너지 회사(Qatar Energy)의 대규모 LNG운반선 발주 프로젝트 등 향후 동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적선사의 관련 선대 확충을 위해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18)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친환경 선박, 대규모·시리즈 발주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RG발급 규모를 20% 확대하여, 조선사의 최근 9년내 최대 수주액(459억불) 달성에 기여하였다. 국내 해운사에 대한 선대 확충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여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승인실적을 시현하였다. 또한, 해외선주 금융도 전년 대비 53% 확대된 22.2억불을 지원하여 2014년 이래 최대규모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 및 우량 고객 확보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해운사 컨소시엄에 대한 금융 제공을 통하여, 국제 선박금융 대표 저널인 마린머니의 '2022 Deal of the Year'를 수상하는 등 조선·해양산업 금융지원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한편, 2022년 하반기 환율급등으로 조선사의 신용공여한도 여력이 소진된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총 32.2억불 규모의 선물환 거래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사 환위험 경감 및 수주 여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⑤ 주요 수출산업(자동차, 전기전자 등) 경쟁력 강화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20대 주요 수출품목을 반영하여 기존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주요 수출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수출경제의 중요한 핵심 산업을 ‘주요 수출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30.4조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자재 확보, 수입대체,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 등 부문에 2022년중 21.9조원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2021년 27.4조원 → 2022년 30.1조원)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최근 수출 품목별 비중 변화 추이, 공급망 불안정 심화, 그리고 국제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요 수출산업’ 범위의 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경제의 중요한 핵심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에서 제외되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0)
- ▶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과 소부장 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바, 해당 분야에 대한 기관의 지원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0)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2022년 주요 수출산업 범위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수출규모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년 대비 큰 폭의 지원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전년 대비 +72.6%)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수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

수출입은행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여신공급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30.1조원을 지원하였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전략

산업의 주요소재 생산능력 확충 지원에 힘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공급망 자립 추진기반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정부 지정 소·부·장 특화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전년 대비 +58%)함으로써 소부장 생태계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성장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지원에도 충실하는 등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있는 지원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래산업에 필수적인 희소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은 여전히 진행중인 바, 수출입은행이 2022년 신설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이 단기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원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나. 전략시장 발굴 및 지원

### ① 정부 대외정책 대응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려는 EDCF 기본약정 확대 취지에 따라, 2022년중 다수의 1억불 이상 대형 EDCF 사업을 지원(7건, 15.6억불)하였다. 2022년 사업당 평균 승인액 또한 전년 대비 46% 상승하는 등 기본약정 확대가 대형 EDCF 사업 지원으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특별계정 사업 특성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을 재원조성 범위내에서만 운용하고, 지원한도 관리를 통해 리스크 총량을 제한

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지원 고위험국 국가등급 하락시 즉각적인 건전성 하향조정 및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예상손실 흡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취약국가 테마감리, 신용등급감리 등을 통해 특별계정 여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특별계정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2021년 개선한 경험증진자금 및 특별계정 제도를 바탕으로 경험증진자금과 특별계정을 활용한 신규사업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에 대한 경험증진자금 2.1억불 신규승인('22.4월)을 통해 인도네시아 상수도 공급 시스템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금융 지원 사례를 창출하였다. 2022년중 특별계정 사업 3건을 신규 승인하는 등 특별계정 제도 도입 이후 최다 승인 성과를 실현하여 우리기업의 저신용국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통해 후보 사업을 발굴하여 후속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특별계정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EDCF 기본약정을 확대하는 취지가 대상국가의 대규모 개발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인 바, 실제 이들 기본약정이 다수의 대형 EDCF 사업 지원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4)
- ▶ 특별계정 사업의 특성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사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4)
- ▶ 기관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경험증진자금과 특별계정을 활용한 신규사업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55)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우리 기업의 유·가스 밸류체인 구축의 쏠단계를 지원하여 연간 1.3백만톤 규모의 LNG 국내 도입 효과를 창출하였다. 글로벌 원자재 생산기업에게 우리기업 앞 공급실적 유지를 조건부로 자금을 제공하여 리튬, 니켈 등의 필수 원자재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입은행의 이러한 노력은 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원전금융 Team Korea 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외 정부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앞장섰다. 발주처(루마니아 원자력공사 등) 앞 마케팅, 관심서한 발급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을 지원하고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원전 수출의 국가대항전 성격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금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경험증진자금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였다. 경험증진자금 활성화방안('22.8월)을 수립하여 경험증진자금 후보사업에 대한 체계적 발굴 및 관리를 도모하였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EDCF-EDPF 공동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등 개도국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복합금융(수은금융·EDCF·EDPF 연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촉진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별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지역별 중장기 금융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다.

## ② 선제적 사업개발 등 신흥국 진출지원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전대은행 소재국 앞 대면 출장 등을 개시하여, 그동안 변화한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전대금융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한편, 전대은행과의 서명식 등 주요 행사를 대면 형태로 진행하는 등 대외 스킨십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중남미, 아시아 등 우리기업의 주요 신흥국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콜롬비아 Occidente 앞 신규 전대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 우리기업의 실질 금융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충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RM 역할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또한 추진하였다. 보고서 작성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존 평가체계 대신, 사무소의 지역별 업무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군별 지표를 개발하여, 사무소의 현지 밀착형 영업기능을 강화를 도모한 점이 인정된다.

수출입은행은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신흥시장의 주요 유망산업에 대한 ‘지역이슈리포트’ 생산을 통해 지역연구와 산업연구 결합연구를 강화하여, 대내외 고객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시장 유망성과 진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다수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동 수소 산업, 원전 수출, 선진국 인프라

시장 등을 주제로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금융지원 방안 등 우리기업 앞 필요정보를 적시 제공하였다.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현지출장 등 대면 접촉의 제한으로 2년간 직접 소통이 중단되었던 바, 그동안 변화한 시장환경 및 신규 금융수요 조사 등 전대 네트워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5)
- ▶ 전대금융이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에 네트워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6)
- ▶ 단순히 가점부여를 통해 사무소의 RM 활동을 유도하기보다는,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RM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6)
- ▶ 향후 각국의 통상전략, 유망산업 동향 및 관련 정부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주요 현안을 시의성 있게 선정하고, 지역연구와 산업연구를 결합한 심층 연구로 대내외 고객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6)
- ▶ 향후 금융지원 이외에도 우리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 동향, 진출 전략 등 정보를 우리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55)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아시아의 금융중심지 변화와 우리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확대 등 대내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내 금융허브로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싱가포르에 신규법인을 설립(2022.7월)하여 정책금융거점 확장을 도모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전대은행 앞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상품 지원, 신용도가 열악한 아프리카 은행 앞 전전대 상품 도입 등 신흥국 전대은행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 수단 다변화로, 전대금융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발굴과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의 현지 마케팅을 실시하여 특별계정 신규승인 및 후보사업 발굴 성과를 이루었으며, 수출입은행의 해외사무소를 이용하여 현지정부·기업과의 금융협력 또한 활성화하고 우리기업의 신규시장 진출을 촉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시에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정치·경제동향 및 현안, 신흥시장의 유망 산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 또한 강화하여, 우리기업 및 수요자 앞 정책금융 전략 방향 또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③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2022년중 국내 민간금융기관이 해외사업 Track Record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금융주선 및 채권·채무보증을 제공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참여기회를 촉진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해외 금융지원 경험이 부족한 국내 상업은행이 Track Record를 축적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29)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2022년중 총 14건, 36.9억불 상당의 금융주선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채무보증·복합금융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리스크가 큰 중장기 해외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운 국내 상업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기업과 민간금융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유관기관 등과 구축한 다수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특히, 배터리·반도체와 같은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책금융기관간 또는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들과 공동지원함으로써,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 및 각국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 또한 지속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내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低신용국 앞 전대금융 한도를 최초 설정하는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외 발주사업 대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인 바, 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 **다. 기금 수탁업무의 효과적 수행**

### **①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지원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2021년 旣구축한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적용하는 최초사업을 3건 시행함으로써, 후보사업 기획단계부터 기후사업화를 도모하여 해당 체계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25년부터 EDCF 모든 사업의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전면 적용을 위해 연도별 확대계획을 수립하는 등 EDCF 사업의 기후사업화 추진 로드맵도 마련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서 개도국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무상기관과 구체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2022년중 양자기관과의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3건) 및 수시 협의, 범부처 사업심의위 참여(5회) 등을 통해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였다. 무상기관과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정책과제 및 유무상 연계후보사업 발굴, F/S 공동수행 등 EDCF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논의를 고려할 때, 기관은 금번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EDCF 사업체계內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신속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1)
- ▶ 기관은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서 개도국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 무상기관과 구체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에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EDCF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를 권고한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1)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대형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수원국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최대 승인 실적을 달성하는 등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EDCF 역대 최대규모 사업(4.6억불)을 수출금융(1억불)과 복합금융으로 적기 지원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수주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아울러, 인프라 수요가 큰 주요 수원국과 EDCF 기본약정(F/A) 확대를 통해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신속 지원 및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무상원조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연계후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준비 단계부터 과업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업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금융기구(MDB)와 퍼실리티 한도 확대 등을 통해 협조융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MDB 네트워크 강화도 도모하였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ODA 정책 이행,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개발협력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2022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다만, 대내외 비구속성 원조 확대 요구를 고려할 때, 최근 5년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 평균(52.8%)이 정부의 중기 비구속성 목표('25년까지 60%) 대비 낮은 수치이므로, 수출입은행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 ② 남북협력기금 사업지원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경협기업 앞 대출(78개사, 245억원), 무상경비 지원(394개사, 96억원), 투자자산 피해지원(13개사, 84억원) 등 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기반 유지에 기여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금융지원 방안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에 치우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금융지원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3)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대북 거래기업 앞 신규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원리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교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 검토 및 남북을 둘러싼 대외여건 호전에 대비하여 단계별 남북 경제협력 추진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부 대북정책 관련 실질적 이행 및 구체적 제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된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북간 경협사업 지원경험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중 전문성 관련 대외 지식공유 활동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 활성화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북 관련 대표기관으로서 국내외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라. 중소중견기업 지원

### ①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다각화 및 제도개선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022.3월)하고 1.5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애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였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영자금 소요가 증가한 기업 앞 수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목적물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적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 대출 기업의 환차손 경감을 위해 0.9조원의 환헤지 서비스(통화전환옵션)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앞 환위험관리 설명회를 개최(2회)하는 등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최근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5)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러-우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4년 연속 최대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을 달성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고물가 복합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및 '제8회 중견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신규 프로그램 도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수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나, 중견기업의 금리부담 또한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중견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우대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해외온렌딩 등 정책금융 내실화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간접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2022년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구매자신용으로 수출입은행이 Paperless·무소구 방식으로 조기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직접수출 거래위주로 지원되던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금융을 간접수출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공급망금융이 직접수출 거래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전체 간접수출 중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향후 간접수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7)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해외온렌딩 관련 지방은행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 앞 실적 비중을 약 50%까지 끌어 올리는 등 지방소재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ESG기업 및 미래전략산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 정책과제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도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돕고자 공급망금융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을 새롭게 도입하여 간접수출 중소기업까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③ 고용, 사회적가치 우대 등 정책성 여신지원 강화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환경성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ESG 경영 실천기업 지원 등 ESG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ESG 금융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ESG 금융 프로그램 지원 현황' 조희화면을 신설(2022.7월)하여 지원 다변화에 따른 ESG 금융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ESG금융지원이 ESG 산업분야, 고용창출 우수기업, 상생금융 지원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 중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이루기 위한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38)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ESG 금융프로그램 지원목표 180조원(환경 115조원, 사회 65조원) 설정과 지원대상별 금리·한도·수수료 우대 등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ESG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환경성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ESG 경영 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2022년 신규 도입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ESG 금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10.5조원의 ESG 금융을 공급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마. 지속가능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 **① 적기 · 안정적 자금조달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최근 ESG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SG채권 홈페이지 개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발간 등 ESG 채권·경영전략 정보 관련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최근 ESG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41)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유동성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조달통화·수단 다양화를 통해 목표치를 상회(131%)하는 재원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조달하여 우리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 부응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ESG 채권 발행과 IR 활동으로 글로벌 우량투자자 기반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②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지속하였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대한항공의 경영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여신 지원을 유지하였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앞으로도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지속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추후에도 양대 항공사 경영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분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51)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의 최다 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선조건 협상과 경쟁입찰을 거쳐 한화그룹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회생절차 또는 청산 등을 통한 채권회수 극대화보다는 민간 경영에 의한 조선업 전반의 질적 성장과 고용 안정 등 국가 경제적 효과로도 모한 대표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의 재도약을 위해 각 항공사별 경영상황에 따른 다양한 금융 수요에 최적 금융 상품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항공사에 자금조달 방안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기업의 금융 선택지를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여신만기연장 조치 등을 통해 항공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대한항공 영구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한 이익 확보로 항공산업 지속 지원을 위한 여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③ 수지관리 고도화 및 수익기반 확대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응하여, 부서별 수익성 지표와 전행적 이익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체계를 정립을 도모하였다. 부서 수익성 평가지표에 '여신평잔 달성도' 지표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에 해당 지표를 시범도입하였다. 또한, 전행 수지목표 및 부서별 이익목표 관리 등의 협의·심의 기구인 '수지관리협의회'를 '재무전략협의회'로 확대하여 전행 수지와 부서별 수익성 지표간 동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응하여 부서별 수익성지표와 전행적 이익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45)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여신 수익성 분석의 기준을 확대하여 차기연도 금리·보증료율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정립하고, 여신 포트폴리오 정교화 및 지속 가능한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 기준금리 확정 시점과 집행 시점 축소를 통해 금리 변동성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ALM 체계를 활용하여 보유 여유자금의 수익성 개선, 금리부 자산 듀레이션 관리를 통한 순자산가치 제고 및 달러화 강세에 대응한 환 포지션 관리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수익분석 체계 또한 마련함으로써 비여신이익 관리체계 구축 및 수익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2022년 연간 총 1,087억원의 수익을 확보하였다. 불안정한 금융환경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보유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운용함으로써,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수출입은행은 고객기업의 헷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기업에 제공한 여신과 연계한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로, 7.9백만의 추가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입은행 여신의 원리금상환 안정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차입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수출입은행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된다.

#### ④ 부문별 리스크관리 노력

- ('21년도 경영평가 환류결과) 수출입은행은 체계적인 기후리스크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수행(2022.4~10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리스크로 인한 환경·사회영향 및 재무건전성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 등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외환 등 리스크 이외에도 기후리스크에 따른 중장기적 미래 잠재위험에 대비하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2021년 수립한 고객기업의 ESG 리스크 모니터링 로드맵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기업 ESG 언론기사 메일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ESG 리스크의 선제점검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은행의 여신감리체계에 ESG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21년 도입된 심사·승인 분리 제도의 운영 관련해서는, 여신부점 앞 설문조사 실시(2022.7월) 및 여신심사조직 개편·운영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업무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코로나 19에 따른 금융지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잠재부실 현실화 대비를 위하여 취약기업에 대한 영업·재무현황 및 잠재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상기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개별기업과의 채무상환 계획 협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지원 여신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여 잠재부실 현실화에 대비한 손실흡수 여력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 '21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 ▶ 현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외환 등의 리스크 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피해위험 및 2050 탄소중립선언 등에 따라 저탄소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위험인 기후리스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잠재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47)
- ▶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ESG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리체계에 ESG 요소를 확대·내재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47)
- ▶ 심사·승인 분리 운영과정에서 업무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47)
- ▶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취약여신에 대해 기관은 향후 관리방안 점검과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1년도 평가결과보고서 p.50)

- **(‘22년도 평가결과)** 수출입은행은 환율 급등, 고객기업 자금수요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3,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2022.10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준의 BIS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수출입은행은 여신지원의 거액·집중화 추세에 따라 일부 고편중 산업에 대한 내부자본한도를 매년 설정·관리하고 기업·계열·국가별 익스포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젤위원회 권고사항(바젤Ⅲ)을 따라, 기업간 통제관계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반영한 거래상대방 그룹 익스포저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잠재부실 대비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2022년 고정이하여신비율 1.12%(△0.6%p),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8.4%(+52.0%p)를 기록하는 등 손실대응능력 또한 확충하였다. 향후에도 수출입은행은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 도입된 심사·승인 분리 제도를 신규 여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심사사례 공유, 여신부점 설문조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신용 평가와 심사업무로 이원화되었던 담당조직을 심사업무 중심조직으로 개편하여 심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